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12.29.(목) 조간 (인터넷) 12.28.(수) 12:00	-

담당 부서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880)
	소상공인정책관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추진 전담조직(TF)	담당자	사무관	전근표 (044-204-7282)
			사무관	임선아 (044-204-7875)
			주무관	이효선 (044-204-7284)
	정책기획관 재정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하녕 (044-204-7340)
		담당자	사무관	임호순 (044-204-7341)
			주무관	김남윤 (044-204-7345)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최종 실적 9,516.3억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기간 온·현실공간(오프라인) 매출 4,249.8억원, 온누리상품권(지류) 5,266.5억원 판매 기록 … 당초 목표인 8천억원 초과 달성

□ 내년부터는 동행축제 등 대국민 소비 촉진 행사를 기획·총괄하는 전담기구로 ‘소비촉진기획총괄반’ 신설·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이하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최종 실적 집계 결과, 온·현실공간(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 4,249.8억원, 지류 온누리상품권 판매 5,266.5억원으로 총 9,516.3억원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은 온·현실공간(오프라인) 대규모 판촉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됐다.

당초 온·현실공간(오프라인)을 통한 매출 3천억원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5,000억원을 합한 8,000억원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총 9,516.3억원의 실적으로 목표 대비 1,516.3억원(19%) 초과 달성했다.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중소·소상공인 상품이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고창 풍천장어 세트'는 우체국쇼핑의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6,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안동한우'도 가치삽시다와 티몬 실시간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21일 방송)를 통해 2,000만원 이상 판매됐다.

또한, 제주 노지 조생감귤과 추풍령 지역 햅쌀도 온라인기획전을 통해 각각 1억 100만원, 1,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25일까지 5,266.5억원이 판매됐다.

특별판매기간(12.1 ~ 12.16) 중 5,138.1억원이 판매된 뒤에도 25일까지 일반판매를 통해 128.4억원의 상품권이 추가 판매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 (특별판매기간) 구매한도 최대 100만원, 할인율 10%
  (일반판매) 구매한도 최대 50만원, 할인율 5%

16일 개막식이 열렸던 서울 열린송현 녹지광장에도 25일까지 영수증-음료 교환 행사(이벤트), 미디어쇼, 나만의 조명 만들기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운영됐으며, 추운 날씨에도 10일간 1.5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방문해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관한 추억을 남겼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열린 「7일간의 동행축제」와 이번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의 성공을 이어가고자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신설했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내년부터 동행축제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총괄해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며, 산하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판매·촉진 행사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국내 행사를 진행하면서 얻은 요령(노하우)을 기반으로 향후에는 동남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판촉 행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은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7명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다가올 동행축제를 기획·총괄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한다.

이영 장관은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이 목표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중소·소상공인의 좋은 상품과 이를 알아주고 소비 촉진에 참여해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신설되는 소비촉진기획총괄반을 통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다 부응하도록 향후 소비 촉진 행사를 알차게 기획하겠다”며,

“이를 통해 3고(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큰 보탬이, 국민들에게는 득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